

CAGLIERO 11

살레시오 선교 활성화를 위한 회보



사 랑 하 는
살 레 시 오
선교사들과
선교를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해마다 40개의 관구에서 백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살레시오 선교지에서 12개월 동안 자원 봉사를 하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천명 이상의 청소년들은 몇 주간의 선교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도착한 후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문화 충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본당의 활동이나 또래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걸까요? 자원 봉사의 경험이 그들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사는 방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일상적이고 활발하지 못한 환경에서 방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탈리아의 6개 관구에서 40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매년 이틀씩 모임을 갖고 자신들의 짧은 선교 경험을 나눕니다. 매년 9월 선교사 파견에 앞서, 끌레 돈보스코에서 Harambee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지에서 여름 체험을 한 후, '이태리로 돌아오는 것이 왜 이리 싫은지' 하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선교 자원봉사의 과제는 어떻게 자신의 집에다 이것을 접목시키는 가입니다. 특별히 아시아나 아메리카 혹은 아프리카에서 일 년 간 관대한 봉사를 한 후 유럽이나 아메리카로 돌아가는 선교자원 봉사자들은 자신의 관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고무자나 동역자나 살레시오 협력자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두 관구(미국의 동, 서 관구)에서는 자신들이 몇 년 전에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활성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에 커다란 선교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며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 가까이에 있는 살레시오 선교지에 항상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그곳에서는 항상

Václav Clement
선교 평의원,
바츨라브 클레멘트 신부

**선교는 모두가,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리고 언제나 해야 합니다.**

꿈 임없는 복음 선포는 항상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선교사의 도전 정신 때문에 교회에 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사목 정신을 불러일으키며 사목방법을 새롭게 합니다. - 새로운 복음화의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 "선교활동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신앙과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며,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견고해집니다. 교회가 보편적 사명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새로운 복음화를 고무하고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 2)

... 부활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포할 욕구를 느꼈다. 그들이 빵을 쪄낼 때 주님을 알아 본 후,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열 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길에서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 하였다 (루카 24,33-34)

...복음선포의 대상자는 모든 민족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본질상 선교사이고 이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성자와 성령의 사명으로부터 그 원천을 갖는다. (만민에게, 2)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는 은총이자 부르심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원입니다. 교회는 복음 선포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복음 선포, 14) 그 결과로 교회는 자신을 위해 존재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고무되고 그의 은총과 사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그의 활동은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도되도록 확실하게 전해져야 한다. (만민에게, 5)



이 일은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위임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습니다. .. 인류에 대한 총체적 전망에서 바라보면, 이 사명은 여전히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수행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의 선교사명, 1) ... 선교는 모두가, 모든 것을 이용해서, 언제나 해야 합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은 나누어야 할 선물이고, 전해져야 할 소식입니다. ... 선교의 날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인류를 만나러 가고 싶은 열의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교황 성 베네딕토 16세의 메시지
2011년 세계선교에서
전문 : <http://tinyurl.com/6e9jpnb>

살레시오 선교사 파견식



142차 살레시오 선교사 파견식은 로마와 토리노에서 9월 1일 부터 새 선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시작되며, 2011년 9월 25일 도움이신 마리아 대성전에서 총장님의 십자가 수여로 이루어집니다.

이름	관구	파견지	이름	관구	파견지
D. ARULANANDAM, Alphonse	INM	Irlanda	Cl. MANINDA, Lucas	AFC	Venezuela
D. AYALA, Pedro Maria	MEG	BEN	D. MARIASUSAI, Raj Arockiam	INT	BEN
Cl. BEREK, Antonio	ITM	BEN	Cl. NGUYEN, Dominic Viet Binh	VIE	Irlanda
D. BOIX PUIG, Santiago	URU	Angola	Cl. NGUYEN, Peter Anh Duy	VIE	Paraguay
D. CHOVAŇÁK, Jan	SLK	Siberia	Cl. NGUYEN, Joseph Vu Thanh Phuong	VIE	Argentina
Cl. BINH, Dominic Nguyen Vien	VIE	Irlanda	Cl. NONGRUM, Simon	ING	BEN
D. DE NARDI, Giampiero	ICC	Guatemala	Cl. PHAN, Joseph Anh Tuan	VIE	Venezuela
Cl. DANG, Cosma Joseph The Lam	VIE	Bangladesh	Cl. PORTUCHAY, Roman	EST	Nigeria
D. DAS, Jacinto	INP	Sud Africa	Cl. SWAMY, John Paul	INT	Francia
D. IVANČIČ, Peter	SLO	Cuba	D. SZCZYPA, Roman	PLE	Gran Bretagna
D. JURAO, Joel	FIS	Pakistan	D. THOTTUPURATHU, Shiju James	INC	Guatemala
Cl. GIA, Joseph Luu Vu Quoc	VIE	Praguay	Cl. TRAN, Paul Xuan Binh	VIE	Irlanda
D. KELELA, Isidore Mbokolo	AFC	Marocco	Cl. TRAN, Joseph Hoang Phuc	VIE	Gran Bretagna
Cl. LEO, Arockiam Thomas John	INT	MOR	Cl. VALIYAKATTEL Mathew	INK	Medio Oriente
L. LIONELLI, Roberto	ICC	Tunisia	D. 양정식 마르코	한국	영국
Cl. LUU, Joseph Vu Quoc Gia	VIE	Argentina			

D: 사제 Cl: 신학생 L: 수사



살레시오 선교 지향

남아시아 - 인도

인도의 우리 교육 사목과 사회 사목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이 개인적인 하느님 체험을 나눔을 통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009년 인도의 뭄바이에서 있었던 II Primo Congresso Missionario (Prabhu Yesu Mahotsav, <http://indianmissioncongress.blogspot.com>) (첫 선교 회의) 에 따르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누는 것은 다종교와 다문화의 환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첩경이다 (요한 바오로 2세, 아시아 교회, 20).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느님 체험을 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원고를 cagliari11@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